



▶1면에서 이어짐

용역업체인 두레시닝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직위해제가 된 건 맞지만 임의 사직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두레시닝 인사담당자는 직위 해제 후 소장과 반장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더불어 노조와 두레시닝은 합의를 통해 이들의 ‘사직처리’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었던 고발

고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노조는 2016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똑같은 관리자를, 똑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었죠.”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잘리고 싶냐’라는 협박은 심심하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정도 말은 신경도 안 써. 뭐 ‘무식한 것들이 청소나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같은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었죠. 노조 생기고 나서는 쉽게 자르지는 못하는데, 청소를 다 한 걸 컴플레인을 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괴롭혔어요. 우리는 뭐, 을이었지.” 당시엔 폭언의 강도가 지금보다 심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반장에게 ‘소장의 부당지시에 대해 감독의 역할로 중재·거부 등 최선을 다 하겠다’,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학교가 고발 건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국제캠퍼스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본사(용역업체)를 불러 권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왜 학교가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이런 일에 관련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개입을 한다면 인사권 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용역회사에 다 맡겼으니까요.” 2016년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반장과 노조가 오해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각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로 일축했다. 두 번째 고발 건에 대해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었다”고 답했다. “그렇게 갑자기 노사합의서를 써서 반장과 소장을 내쫓게 되면 현장은 어떻게 합니까. 노조를 만나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노동자도 용역업체 직원이고, 관리자들도 용역업체 직원인데 용역업체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지점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관리자의 폭언에 대한 문제가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폭언이 있었다면, 학교에서 바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2013년도에 한 번, 폭언을 했다고 들려왔을 때는 바로 본사를 불러 주의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들려온 게 없구요. 알고도 모른척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과 반장 또한 고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장은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폭언을 하겠냐”며 “오히려(청소노동자 분들에게) 야유회, 송년회 등 행사를 기획하며 잘해드리려고 했다. 이런 진심이 왜곡되어 사람으로서 화가 나 ‘욕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폭언 문제에 대해 부인했다. 반장 또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일을 시킬 때도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캠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 직고용을 이루는 동안 국제캠에서 만난 청소노동자들은 계속 말했다. ‘사람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임금도, 노동 환경도 아니었다.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은 여전하다.

‘미래창조스쿨’, ‘미래혁신원’으로 명칭 바뀌 ‘교육인증’ 불투명 … 오픈랩은 LINC+ 연계운영

‘미래혁신원’ 출범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해 8월 외부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되며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을 불렀던 ‘미래창조스쿨’이 ‘미래혁신원’이라는 부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미래창조스쿨은 이미 지난해 시행됐어야 하지만 시작부터 학내 소통 부족의 대명사로 자리하며 한 해 동안 표류했다. 2016년 2학기 오픈랩 개관, 2017년 3월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계획들도 무산됐다. 미래창조스쿨을 이어받은 미래혁신원은 “구성원과의 소통 없는 시작은 오히려 독약”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미창스’, 미래혁신원으로 학생 취업·창업 지원

‘미래혁신원’은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지원처가 통합됐으며 현행 17개 팀에서 12개 팀으로 개편됐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원장을 맡은 공공대학원 김운호 교수는 “현재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서들이 흩어져 있다”며 “일차적으로 이 부서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다시 조직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미래혁신원은 부서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혁신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라이프 플래닝’과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헤드쿼터’다. 개교 65주년을 맞아 대학이 갈 길을 구성원에게 묻는 ‘미래대학리포트 2015’에서 학생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학교가 다양한 사회 진출에 대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미래창조스쿨이기에 이를 이어받은 미래혁신원 또한 큰 틀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미래혁신원 김운호 원장은 “전공 수업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받은 인문 교육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취업만이 아니라 대학을 다닐 때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미래혁신원의 목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래창조스쿨의 핵심이었던 ‘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시행은 불투명하다. 교육인증프로그램은 미래창조스쿨에서 지정한 교과를 일정 학점 이수하면 졸업 시 미래

창조스쿨 인증 문구를 졸업장에 기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증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은 없고, 현행 취업스쿨 역시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효과 의문 ‘인증’은 폐지 구성원 의견 물을 것

미래창조스쿨의 주요 계획 중 하나였던 ‘오픈랩’은 미래혁신원이 이어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오픈랩은 올해 4월 선정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청년창업과 산학협력이라는 LINC+의 목표는 미래혁신원의 학생 취업·창업 지원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서울캠퍼스는 신축 행복기숙사 1층, 국제캠퍼스는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를 오픈랩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공간 디자인 중에 있다. 미래혁신원 김운호 원장은 “학교가 좋다고 생각하여 준비했다라도 학생들의 참여나 관심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관련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 **신청대상** : 2017-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이나,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가능
 - ※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 **신청 및 서류제출·가구원동의 기간**
 - 신청 : 2017. 8. 23(수)~2017. 9. 6(수)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17. 8. 23(수)~2017. 9. 12(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2017-2학기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 **신청 대상** : 2017-2학기 복학생 중
 - 2017-2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 2017-2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
 - 최종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 2017-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의약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교환학기 성적은 9학점 이상 Pass 하였을 것

- **신청기간** : 2017. 9. 1(금)~9. 21(목) [3주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별도 서류제출 없음
 -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2	등록금 전액맞춤
3	2,000,000원
4	1,400,000원
5	1,200,000원
6	900,000원
7~8	400,000원

- **지급일정** : 2017. 10. 27(금) 예정

- **지급방법**
 - 등록금 대출자 : 장학팀에서 대출금 직접 상환 처리
 -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처리

-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 2017-1학기 성적에 있는 재학생
 - 최종등록학기 전액 장학수혜자
 - ※ 국가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활비는 예외
 - 2017-2학기 휴학자
 - 2017-2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 기타 장학규정 장학금 지급제한자

- **문의** : 학생지원처 장학팀(02-961-0045~0046)

2017-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문

-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직전학기 12학점(의약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정규학기 재학생
-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1분위인 학생
 - ※ 단, 동일복학생이 2017-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 **신청기간** : 2017. 9. 1(금) 09:00 ~ 9. 21(목) 24:00 [3주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7-2학기 학습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

- **선발 및 지급일정**
 - 신청자 자격검토 및 장학사정 : 2017. 9. 22(금) ~ 10. 20(금)
 - 선발결과 공자 : 2017. 10. 23(월) 18:00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장학조회” 개별 확인
 - 장학금 지급 : 2017. 10. 27(금) 예정

-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9, 10, 11, 12월)(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9월분은 10월에 소급하여 지급)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본인계좌로 이체지급

- **기타 유의사항**
 - 학업계획서는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 ※ 학업계획서는 1. 2017-2학기 학업 및 본인 역량 강화 목표(1,000자 이내)
 - 2.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3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자는 학기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붙임 파일 작성 양식 참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다음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 결과보고서(붙임 양식참조) 제출기한은 2017. 12. 29(금)까지임
 - 중도휴학시 수혜받은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학업장려비) 중복수혜 불가

- 9. **문의** : 학생지원처 장학팀(02-961-0045~0046)